

보도자료

2010년 6월 17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디지털방송지원과 송상훈 과장(☎750-1480)
디지털방송지원과 김광의 연구사(☎750-1486) kcap@kcc.go.kr

강진 분산중계기로 디지털 TV방송 개시 - 국내기술로 개발된 방송중계기 시범지역 구축 완료 -

방송통신위원회(최시중 위원장)는 강진, 울진 등 디지털 전환 시범지역에 국내기술로 개발된 디지털 방송중계기를 구축하고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을 6월 17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강진지역 디지털 TV방송 개시로 주민에 대한 디지털 컨버터 보급 등 정부지원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간 정부지원 대상의 약 90% 세대(509 세대)가 이미 신청 접수를 완료하여 디지털 TV방송 개시만을 기다려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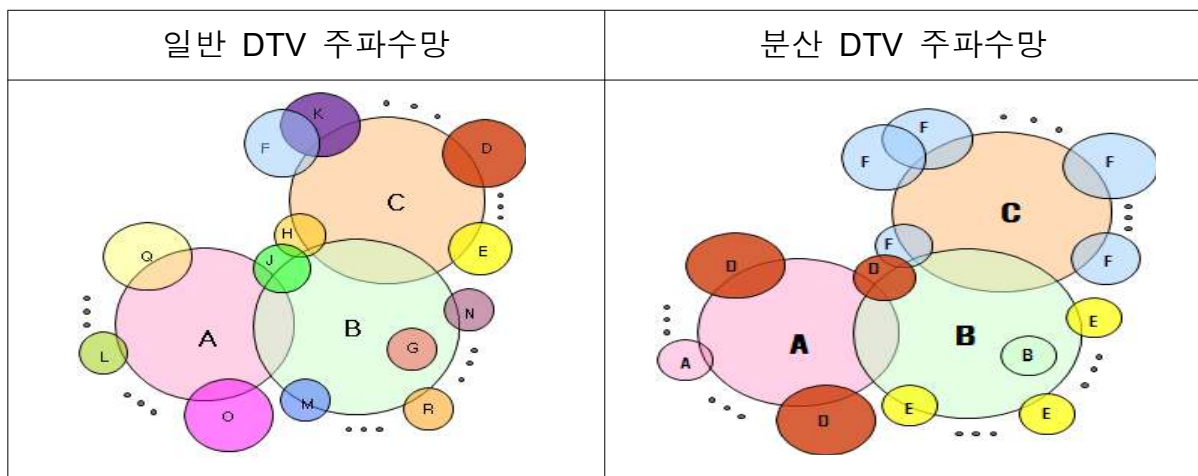
또한 8월에는 단양지역의 디지털 TV방송을 개시할 예정으로 금년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울진 9월 1일, 강진 10월 6일, 단양 11월 3일)하는 울진, 강진, 단양 등 시범지역의 디지털 전환 기반이 마련되고, 주민들이 고화질의 디지털 TV방송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한근 방통위 디지털방송전환추진단장은 “주파수 이용효율이 높고,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분산중계기(강진, 단양)와 동일채널중계기(울진)로 시범지역에 디지털 TV방송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끝.

[참고자료]

지상파 DTV 분산중계기는 지금까지 사용된 일반 DTV 중계기와는 달리 방송 구역내 인접한 여러 개의 중계소가 동일 주파수를 이용하므로 주파수 이용 효율을 매우 높인 방식이다.

< 일반 DTV 중계기망 / 분산 DTV 중계기망 >



※ 알파벳은 주파수(채널), 큰 원은 주 방송국, 작은 원은 중계소 의미

※ 일반 DTV 중계기망은 주 방송구역내 여러 중계소들이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며,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상호 혼신을 발생시켜 사용할 수 없음